

Creative
Power

MBA 

**리더십 교육을
마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lectronic Catalog



“자신을 브랜드화 하라”



Graduate School of
Business

From our dean...



안녕하십니까? 경영대학원장 강효석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 리더십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수료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Leadership’은 두말할 나위 없이 CEO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며, ‘소통’은 경영인들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기에 미국 MBA과정에서는 정규 교과과정으로 다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국내대학 MBA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미약한 상황이므로 우리 대학원에서는 3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MBA과정 원생들을 대상으로 Leadership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CEO로 성장해 나갈 MBA과정 원생 여러분들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덧붙여 훌륭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주신 꿈·희망·미래재단의 김윤중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외대 MBA에서는 이와 같은 특별 교육과정 외에도 미주 E-MBA 동문회 초청 해외 세미나와 MBA 인재뱅크 등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MBA과정 원생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자기계발에 매진하여 글로벌 CEO로 성장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Photo...



Photo...



Photo...



Photo...



Photo...



Epilogue...

정 O O(2010. 국제금융)

제겐 너무 큰 가르침 소중하고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뜨거운 가르침!!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잠시일지라도 아쉬운, 같이 했던 여행길! 행복했습니다. 저도 젊어졌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김 O O(2011. 국제금융)

‘소통’을 위한 3일 간의 여행 너무 즐거웠고요. 새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매 과정마다 내 안의 나를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주제들로서, 진지하게 임하면서 많은 글들을 적었고요. 매 과정이 다 기억에 남네요.

자기소개 할 때의 뇌 그림을 그려가며 소개했고, 셀프 토크... 너무나 생소한 경험이었구요, "Pep talk" 즉흥에서 만들어 낸 단어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단어로 나에게 늘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함께한 동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은, 정말 그들 자신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행동하고 그들 자신만의 성을 만들어 가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며, 새삼 저 자신을 더욱 더 아름답게 완성시키고 싶어요! 셀프 동영상도 너무 좋았어요.

박 O O(2010. 국제금융)

3일간의 여행! 처음엔 어색하고 당황도 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여행을 보내면서 진정한 리더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쳐보았던 시간!

진정 소중함과 소통을 깨우쳤던 것 같네요.

이 좋은 여행을 알려주신, 강사님 코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Epilogue...

배 0 0(2011. 국제금융)

지난 시간 동안 내 속에 나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새롭음에 어색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려하는 감사님 및 코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기억에서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몸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어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0 0(2010. 국제금융)

조금씩 낯선 생소한 느낌으로 시작된 교육, 아니 그 여정의 일정을 끝마치면서 또 다른 나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타이트한 일정 속에 정말 좋음 한번 없이 몰두할 수 있었던 잘 짜여진 커리큘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딱딱한 수업형태가 아닌 정말 여행 그 자체란 말이 맞지 않을까 싶다.

모두가 함께 웃고, 모두가 함께 울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 시간 속에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에 감사한다.

리더십 교육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리더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 0 0(2010. 국제금융)

참 자신감 없고 속내를 표현하지 못하는 저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무척이나 감사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나를 깨우고 나를 찾아가고 나를 표현하는 여행기간 동안 긴장도 많이 하고 처음이라 두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이제는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모두들 너무나 반가웠고 진심으로 감사해요!!

Epilogue...

김 오 오(2010. 마케팅)

어려서부터 사람을 너무 좋아 했기에 자연스레 리더십에 관심이 생겼었다. 나이가 한 살, 두 살 차면서 리더십이란....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닐까 했다.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이를 기다리다가 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에 신청하게 되었다.

솔직히... 흔히들 야기하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강의를 듣는데 있어서 릴렉스하게 해 준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들(내 모습 또한...)을 보니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나 굳어있었던 거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다.

3일 간의 프로그램으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고도 남을 준비운동은 되지 않았나 한다. 함께 강의를 들었던 모든 리더님들, 강사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 오 오(2011. 경영학)

하...오랜만에 정신없이 웃었습니다. Simple is the best 라고 했나요? 제 소감은.... 교육 후 교육기간을 떠올리며 짓는 웃음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내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줘서, 웃음짓게 해 줄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좋은 인연을 알게 해주어서..... .

이 오 오(2009. 경영)

2박 3일 간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참 많이 느낀 것 같다. 나에 대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소중한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 모든 기쁨, 행복 그리고 슬픔까지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참 커질 수 있다고 느꼈다.

Epilogue...

한 0 0(2010. 마케팅)

처음에는 액션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웠으나 정말 기다려지는 즐거운 수업이었다. 성인이 되어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일이 드문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시간이 금방 지나간 듯^^

좋은 강사님과 좋은 강의 그리고 좋은 원우들까지~

2011년 내가 행한 일 중 잊지 못할 기억이다.

나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가진 값에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인생이란 게 혼자 걸어갈 수 없기에 늘 상대와 소통해야 하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조금 더 상대에게 나은 내가 되고자 나를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권 0 0(2011. 경영)

학생회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원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팁을 알게 된 것 같아 행운같은 기회였고, ‘나’ 자신을 깊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eel Free!!

심 0 0(2011. 국제금융)

소통의 리더십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몰라서 안한 것, 알면서도 못한 것, 알면서도 안한 것,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실행에 옮겨 볼 생각입니다. 오늘의 인연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서 오늘의 추억을 이야기 할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pilogue...

양 O O(2010. 경영)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영상편지였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해볼 기회가 있을까요? 지난 3일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O O(2010. 경영)

기대했던 학문적 리더십 교육이 아니어서 많은 당혹감과 신선한 충격의 프로그램이었다.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의 함양보다는 조직의 팀원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배운 것 같아 뜻 깊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같이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고 같이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했다.

송 O O(2011.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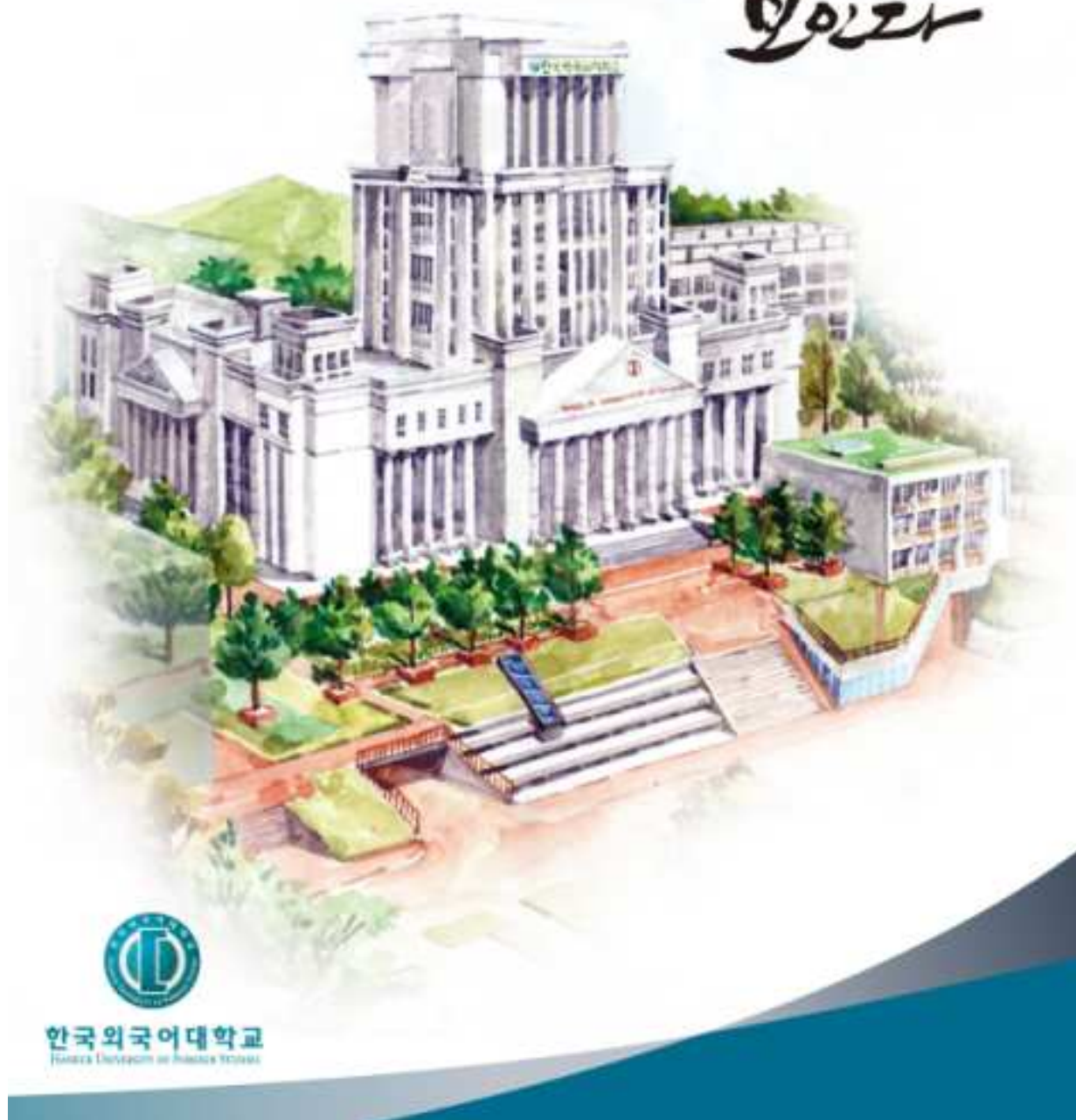
잊고 살았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긍정적 에너지의 교류가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하하 부정어를 써버렸다) 음... 열심히 이 분위기와 에너지를 기억하려고 애쓸게요.

권 O O(2011. 국제금융)

하나로 만들어 줘서 너무 고맙고 즐거웠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관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너무 좋다.

<http://biz.hufs.ac.kr>

외대를 만나면
시대가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